

秦漢, 三國, 晉 왕조의 王名과 避諱 사례에 관한 고찰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진학교실¹

윤창열¹*

关于秦漢、三國及晉王朝时代的帝王之名和避諱例子的考察

尹暢烈¹*

¹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通过对秦漢时代、三國时代及晉王朝时代的帝王之名和避諱例子的研究, 得出如下结论.

在秦时, 虽然已开始出现生諱, 但其法尚未制度化, 所以属于简易施行的阶段. 到了漢时, 便出现了一定的可资代替其諱之字, 上書时不可冒犯所定之廟諱, 但却可臨文不諱、詩書不諱, 所以相对比较自由一些. 在魏时, 当有司审议事案后, 向圣上禀告审议结果时, 其上書、文書及官员和百姓皆不可冒犯王諱. 到了吳时, 于赤烏五年立孫和为太子后, 将禾興改名为嘉興, 这是嫌名避諱的最早例子. 三国时, 对名字的避諱延伸到了对字的避諱, 可谓三国时代之独特风俗.

避諱之风到了晉代变得日益严密, 但不象唐宋之时那般繁琐, 而比较特异的是, 东晋时对皇后的避諱较其他各代出现得特别频繁.

关键词: 避諱, 廟諱, 諱議, 帝諱, 嫌名, 生諱.

I. 서론

이름(名)은 나와 남을 구별하는 칭호이다. 그러면 서도 이름은 자신의 自尊과 존엄을 나타내는 존귀함이 있다. 그래서 한자 문화권에서는 일찍부터 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尊名, 敬名 사상이 있었으며 이 때문에 冠禮를 치른 후에는 字를 지어서 이름대신 사용하고¹⁾ 實名을 敬避하였다. 그리고 사람이 죽은 이후에도 생전의 이름을 諱하여 공경과 삼가함을 드러내었다. 이와 같은 소박한 尊名, 敬名 사상은 진시황 이후 강력한 전제 봉건 국가가 출현하면서 살아 있는 임금의 이름을 휘하는 生諱의 전통이 생겨났고 이것이 제도화되면서 한나라 이후 청나라

말기까지 임금의 이름과 같은 人名, 地名, 官職名, 物名 등을 바꾸어 많은 혼란과 당황스러움을 초래하였다. 저자는 처음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薯蕷(마)를 山藥이라 바꾸고 玄武湯을 眞武湯으로 바꾸고, 玄蔘을 元蔘으로, 玄明粉을 元明粉으로, 玄胡索을 延胡索으로 바꾸어 부르고, 蘇敬을 蘇恭으로, 陶弘景을 陶宏景으로, 唐愼微를 唐謹微로 바꾸어 부르는 것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다가 秦나라 한나라 이후부터 청나라 말기까지 역대 왕조마다 王名을 生諱하여 명칭을 바꾼 것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먼저 “避諱의 유래와 종류, 방법에 관한 고찰”을 쓴데 이어 본 논문을 집필하게 되었다. 歷代 모든 王朝의 王名에 대한 피휘 사례는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韓醫學과 관련된 것은 능력이 미치는 한 모두 수집하였고 이 밖의 관련 내용도 가급적 상세히 수집하였다. 이에 순서에 따라 먼저 진한시대, 삼국시대, 진나라 시대의 王名과 避諱 사례를 고찰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 교신저자 : 尹暢烈.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042) 280-2601, E-mail : yooney@dju.ac.kr
접수일(2009년 4월 25일), 수정일(2009년 5월 11일),
게재확정일(2009년 5월 15일)

1) 蕭遙天. 中國人名研究. 北京. 新世界出版社. 2007. p.108.

II. 본론

1. 各 王朝의 王名과 諱例

1) 秦漢時代

(1) 概說

진나라 시대는 生諱가 시작되었으나 아직 제도화 되지 않았고 그 법도 간략하게 시행되었을 뿐이었다. 한나라도 이를 이어서 비로소 뜻이 같은 글자로 대체하였다. 그러나 『史記』와 『漢書』를 보면 임금의 諱에 대해서 피휘한 것도 있고 피휘하지 않은 것도 있다. 피휘한 것은 후인이 교정하여 고친 것이나 현존하는 후한 시대의 여러 碑石을 예로 들어보면 사실상 피휘하지 않은 것들도 있다. 대략 上書를 하여 일을 말할 때는 廟諱를 觸犯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通례이지만 臨文不諱, 詩書不諱 같은 것은 『禮記』에 분명한 지침이 있다. 한나라는 초기에서 후기까지 오히려 자유로운 점이 있었으니 후세의 예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漢宣帝 元康 2년에 조서를 내리기를 “들으니 고대 천자의 이름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휘하기 쉬웠으나 지금의 백성들 중에는 上書를 올렸다가 휘를 觸犯해서 죄를 범하는 자가 많으니 짐이 이들을 매우 불쌍히 여기노라. 이제 詢으로 개명하니 이 슈이 있기 전에 諱를 범한 자들은 일괄적으로 사면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上書할 때 諱를 觸犯해서는 안된다는 說이다. 靈帝 때의 여러 비석을 보면 멀리는 光武帝의 휘를 피하지 아니하였고 가까이 桓帝의 휘를 피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臨文不諱의 설이다. 오직 한나라 때의 諱는 일정하게 대신하는 글자가 있었으나 후세에는 없었고 비록 있었더라도 또한 일정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한나라 때의 피휘가 다른 시대와 특이하게 다른 점이다²⁾.

(2) 事例

秦始皇의 성은 嬴이고 이름은 政이며 아버지는 莊襄王 子 楚이다. 『戰國策』「秦第一」에서 張儀가 秦王에게 유세하기를 “신이 들으니 天下는 북방의 燕나라로부터 남방의 魏나라에 이르고 또 강대한 荊나라

와 제나라를 연결한다”라고 하였는데 鮑彪의 注에서 이르기를 “荊은 楚也라. 始皇이 그의 아버지 이름을 諱하여 荊이라 한 것이다. 이 책이 始皇 때의 사람이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였다³⁾.

『呂氏春秋』「音初篇」에서 “周昭王이 친히 荊을 치려고한데 辛餘靡가 나이도 많고 힘이 세어서 兵車의 右를 맡았다.”고 하였다. 高誘는 注에서 “荊은 楚也라. 진나라 장양왕의 諱가 楚여서 이를 피해 荊이라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⁴⁾. 그런데 학자에 따라서는 초나라를 荊이라 한 것이 장양왕 이전에도 나타남으로 荊이라 한 것이 피휘 때문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쓴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秦始皇(재위년 B.C.247~210, 이하 동일함)은 趙나라에서 正月 초하루에 태어나 이름을 政이라고 하였다. 『史記』「秦楚之際月表」二世二年에 “端月”이라 한 것에 대해 『索隱』에서 “秦나라에서는 正을 휘하여 端月이라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野客叢書』卷9에서 “진시황의 휘가 政이어서 正月을 征月이라 불렀다.”고 한 말이 있다. 이에 대해 王彥坤은 端月이라 한 것은 분명히 正을 휘한 것이지만 正, 政, 征은 당시에 발음이 같아 통용하였으므로 征이 政을 휘한 것이라는 데에 있어서는 의문을 제기하였다⁵⁾.

二世皇帝(B.C.201~207)의 이름은 胡亥인데 偏諱인 胡만 피휘하였다. 秦나라에 望夷宮이 있었다. 『三輔黃圖』卷一에서 이르기를 “望夷宮은 涇陽縣 長平觀道 동쪽에 있다. 북쪽으로 涇水에 임해 있고 北夷를 바라봄으로 望夷宮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였다. 『史記』「秦始皇本紀」二世三年에 “二世가 望夷宮에서 齋戒하였다.”고 하였다. 『史記集解』에서 張晏을 인용하여 이르기를 “望夷宮은 長陵西北 長平觀道の 동쪽 옛날 亭子가 있던 곳에 있었다. 涇水에 인접해 지었고 北夷를 바라본다”고 했다⁶⁾. 이 궁은 北夷를 바라본다는 것으로써 이름을 지었으나 夷는 東

- 3) 王守謙 등 譯注. 戰國策全譯. 貴陽. 貴州人民出版社. 1992. pp.70-71.
- 4) 陳奇猷 校釋. 呂氏春秋校釋(1). 上海學林出版社. 1984. p.335, 340.
- 5) 王彥坤. 歷代避諱字滙典.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7. p.646.
- 6) 司馬遷. 史記 1冊. 北京. 中華書局. 1982. pp.273-274.

2) 陳垣. 史諱舉例. 北京. 中華書局. 2006. p.132.

方 사람을 말한다. 北狄은 胡라고 統稱했는데 望胡宮이라 부른 것을 周廣業은 『經史避名彙考』 卷5에서 “胡를 諱해서 夷라고 말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정확한 지적이다.

漢나라 고조(B.C.206~195)의 성은 劉이고 명은 邦인데 邦을 國으로 대신하였다. 『史記』「仲尼弟子列傳」에서 “邦巽의 字는 子斂이다.”라고 하였고 『索隱』에서 “『孔子家語』에서는 巽은 選이라 했고 字는 字斂이라 했다. 『文翁圖』에는 國選이라 되어 있는데 또한 한나라의 諱를 피해서 고친 것이다.”라고 하였다⁷⁾. 한고조의 이름이 邦이라서 한나라 때 나온 경서와 인용서적에서는 邦을 國이라 고친 곳이 많다. 『尚書』「堯典」의 “協和萬邦”을 『史記』「高祖功臣侯者年表序」에서는 “協和萬國”이라 개작했고 『五帝本紀』에서는 또 “合和萬國”이라 했으며 『論語』「顏淵篇」의 “在邦必聞”, “在邦必達, 在家必達”을 『史記』「仲尼弟子列傳」에서는 “在國必聞”, “在國及家必達”이라고 하여 邦을 國으로 고친 경우가 매우 많았다.

惠帝(B.C. 195~188)의 이름은 盈이고 滿으로 대신하였다. 『國語』「越語下」에 范蠡가 越王에게 말하는 내용이 실려 있는데 “持盈者與天”을 『史記』「越王勾踐世家」에서 “持滿者與天”이라고 改作하였다⁸⁾. 『禮記』「檀弓上」의 “殷人殯于兩楹之間”, “子疇昔之夜, 夢坐奠于兩楹之間”을 『史記』「孔子世家」에서는 “兩柱間”, “兩柱之間”이라 하였다⁹⁾. 이는 盈을 諱하면서 음이 같은 楹까지를 諱한 것으로 部首가 있는 것까지 諱한 시초이다.

한고조 呂皇后의 이름은 雉이다. 『史記』「封禪書」에 “野鷄夜雉”를 『集解』에서 如淳을 인용하여 이르기를 “野鷄는 雉也라 呂后名雉故로 曰野鷄라”고 하였다¹⁰⁾.

文帝(B.C.180~157)의 名은 恒이고 常字로 代하였다. 이 때문에 제나라의 田恒을 『史記』에서 田常이라 하고 恒山郡을 常山郡(趙子龍의 고향)이라 하고 『春秋』「莊公七年」의 “彗星不見”을 『春秋繁露』「奉本篇

」에서 “常星不見”이라고 하였다. 『御覽』卷992에서는 『吳氏本草』를 인용하여 이르기를 “蜀漆葉은 一名 恒山인데 후세의 의서에서 모두 常山이라고 한다.”고 하였으니 문제의 휘를 피해서 바꾼 것이다.

景帝(B.C.157~141)의 名은 啓이고 주로 開字로 代하였다. 禹입금의 아들 이름이 啓이다. 『山海經』「大荒西經」에 “夏后開”라 하였고 『尚書』「益稷」에 “啓呱呱而泣”이라 되어 있는데 『論衡』「問孔篇」에서는 “開呱呱而泣”이라 하였다. 은나라 紂王의 庶兄 微子 啓를 『史記』「宋微子世家」에서 “微子開”라 하였고 齊桓公이 총애한 衛公子 啓方을 『史記』「齊太公世家」에서 開方이라 하였으며 공자 제자 漆彫啓를 『史記』「仲尼弟子列傳」에서는 漆彫開라 하였다. 王應麟의 『漢藝文志考證』卷5에서 “사기열전에 漆彫開 字子開라 했는데 이름이 啓, 字가 子開로 사기에서 景帝의 諱를 피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春秋』「哀公三年」에 “季孫斯 叔孫州仇가 군사를 거느리고 啓陽에 성을 쌓았다.”고 했고 『公羊傳』에서 啓陽을 開陽이라 했고 何休는 注에서 이르기를 “開陽을 左氏는 啓陽이라 했는데 開로 쓴 이유는 한나라 景帝의 諱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또 청나라 周廣業이 지은 『經史避名彙考』에서 “開封者는 故宋微子啓所封也라 因以爲名이니 漢諱하야 改開封이라.”고 하였다. 『困學紀聞』卷5에서 이르기를 “左傳에는 啓蟄而郊라 되어 있다. 사기정의에서 이르기를 한나라에서 太初曆을 쓴 이후 절기의 이름을 바꾸었다. 雨水는 正月中이 되고 驚蟄은 二月節이 되니 지금까지 바꾸지 않았다.”고 했고, 何焯은 注에서 “啓를 바꾸어 驚이라 한 것은 景帝의 諱를 피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¹¹⁾.

武帝(B.C.141~87)의 이름은 徹이고 주로 通으로 代신하였다. 『史記』와 『漢書』에서 徹侯를 列侯 또는 通侯라 하였고 蒯徹을 蒯通이라 하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의 논문에서 상술하였으므로 생략한다.

昭帝(B.C.87~74)의 初名은 弗陵이고 뒤에 弗로 고쳤으며 不로 代신하였다. 『漢書』「昭帝紀」의 注에서 荀悅을 인용하여 이르기를 “弗字를 휘하여 不이라고 했다.”고 하였다. 『左傳』「文公二年」의 “夏父弗

7) 司馬遷. 史記 7冊. 北京. 中華書局. 1982. p.2225.
8) 司馬遷. 史記 5冊. 北京. 中華書局. 1982. p.1740.
9) 司馬遷. 史記 6冊. 北京. 中華書局. 1982. p.1944.
10) 司馬遷. 史記 4冊. 北京. 中華書局. 1982. p.1359.

11) 王彥坤. 歷代避諱字彙典.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7. pp.339-340.

忌”를 『漢書』「古今人表」에서는 “夏父不忌”라고 하였으며 『論語』「陽貨」의 “公山弗擾”를 『漢書』「古今人表」에서 “公山不狃”라고 하였다.

宣帝(B.C. 74~49)의 初名은 病已이고 后名은 詢인데 謀로 대신하였다. 역대로 荀卿을 孫卿이라 한 것은 宣帝의 휘 때문에 荀을 孫이라 고친 것이라 하였으나 陳垣은 이를 부정하였다. 『史記』「荀卿傳」의 『索隱』에서 이르기를 “뒤에서 또 孫卿이라 한 것은 한나라 宣帝의 諱를 피한 것이다. 『漢書』「藝文志」의 孫卿子注와 『後漢書』「荀淑傳」注에서 모두 “荀卿은 선제의 휘를 피해서 孫이라고 했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틀린 것이고 당나라 사람들의 說일 따름이다. 『荀子』「議兵篇」에서는 자칭 孫卿子라고 하였다. 『後漢書』「周燮傳序」에 “太原閔仲叔同郡荀恁 字君大 資財千萬”이라 하였고 『劉平傳』에서는 郇恁이라 하였다. 西漢의 말기 사람인데 어찌 荀을 피휘하였는가. 荀을 孫이라 일컬은 것은 荀卿을 慶卿이라 칭한 것과 같으니 음이 같아서 말이 바뀐 것일 뿐이다¹²⁾.

元帝(B.C.49~33)의 이름은 奭이고 盛으로 대신하였다. 『通志』「氏族略」에서 이르기를 “奭氏는 召公奭의 후손이니 이름으로 氏를 삼은 것이다. 뒤에 한나라 원제의 휘를 피해서 奭氏를 盛氏로 바꾸었다. 한나라 때 司徒盛吉이 있었고 후한 때는 북해태수 盛苞가 있었다.”고 하였다. 『水經』「汜水注」에서는 “虞縣의 故城 동쪽에 한나라 때의 司徒盛允의 墓碑가 있다. 그의 선조는 奭氏였는데 한나라 중엽 때 이르러 孝元皇帝의 휘를 피해서 盛이라 改姓했다.”라고 하였다¹³⁾.

成帝(B.C.33~7)의 이름은 驚이고 俊으로 대신하였다. 『漢書』「成帝紀」의 注에서 荀悅을 인용하여 “驚字를 휘하여 俊으로 한다”고 하였다¹⁴⁾.

哀帝(B.C.7~1)의 이름은 欣이고 喜로 대신하였다. 『經史避名彙考』卷7에서 “좌진의 曹公子 欣時를 공양전에서는 喜時라고 했는데 이것은 劉向이 고친 것이다. 『新序』「節士篇」에서도 喜時”라고 하였다고 했고 또 “史游가 지은 『急就章』이 碑本에는 閻歡喜로

되어 있는데 顏本에서는 閻歡欣으로 되어 있다. 史游는 元帝 때의 사람으로 그 책을 秘府에 간직해 두었고 응당 哀帝의 휘를 피한 것이니 皇象이 쓴 것이 이것이다(皇象은 삼국 시대 吳나라의 書法家로 황상이 秘部에 간직되어 있던 史游의 『急就章』을 가지고 비석에 글을 썼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¹⁵⁾.

平帝(B.C.1~A.D.5)의 初名은 箕子이고 뒤에 衍으로 고쳤으며 樂으로 대신하였다. 『漢書』「平帝紀」의 顏師古 注에서 荀悅을 인용하여 “衍字를 諱하여 樂이라고 했다.”라고 하였다¹⁶⁾.

후한 光武帝(A.D.25~57)의 이름은 秀이고 茂로 대신하였다. 『宋書』「百官志下」에서 이르기를, “한나라 무제 元封4년에 諸州에 丞을 내리기를 해마다 각각 秀才 1인을 천거하여 올리라 하였는데 후한 때에 광무제의 휘를 피하여 茂才라고 고쳤다가 魏나라 때 다시 秀才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¹⁷⁾.

明帝(57~75)의 初名은 陽이었고 뒤에 莊으로 고쳤으며 嚴으로 대신하였다. 『通志』「氏族六」에서 이르기를 “莊氏는 한나라 明帝의 휘를 피하여 嚴氏로 改姓하였다.”고 하였다. 『經史避名彙考』卷8에서 이르기를 “(사기에 나오는) 嚴仲子의 이름은 遂니 濮陽人이다. 聶政으로 하여금 韓相을 찌르게 한 자를 『論衡』에서 嚴翁仲이라 하였다. 王應麟의 『姓氏急就篇』注에서 ‘嚴氏는 한나라 때 嚴遂가 있었는데 본래 莊氏였다. 한나라 때 명제의 휘를 피하여 嚴이라 고쳤다’고 했다. 또 이르기를 ‘平淮書, 張湯傳에도 嚴助가 있는데 嚴君疾, 嚴仲子와 같은 사람이다.’ 또 이르기를 『漢書』「列傳」에 嚴忌, 嚴助, 嚴正이 나오는데 사기 鄒陽傳에서는 莊忌夫子(忌는 會稽 사람인데 姓이 莊이고 字가 夫子이다))라고 하였다. 助는 그 아들이다. 嚴正은 바로 莊芷이다. 사기의 高祖功臣表의 武彊의 莊侯莊不識, 『漢表』의 嚴侯嚴不識... 『溝洫志』의 嚴熊은 莊熊羆로 아래 글자가 탈락한 것이다. 嚴延年, 嚴彭祖’는 형제이다. 徐彥의 『公羊正義』에서 『六藝論』을 인용해서 『公羊』을 연구한 자에 莊彭祖가

12) 陳垣. 史諱舉例. 北京. 中華書局. 2006. pp.61-62.
13) 鄺道元. 水經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0. p.456.
14) 班固. 漢書(1). 北京. 中華書局. 1992. p.301.

15) 王彥坤. 歷代避諱字彙典.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7. pp.491-492.
16) 班固. 漢書(1). 北京. 中華書局. 1992. p.347.
17) 沈約. 宋書(四). 北京. 中華書局. 1983. p.1257.

있었다. 嚴君平의 이름은 遵이고 蜀 땅 사람이다. 그가 지은 『道德指歸』에서 여러 번 莊子曰이라고 하였다. 당나라 谷神子가 序文에서 이르기를 ‘君平은 莊氏라서 莊子라고 한 것이다. 班固는 이를 바꾸어서 嚴이라고 했다’고 하였다. 嚴子陵의 이름은 光이고 會稽 餘姚人이다. 嚴遵과 함께 皇甫謐의 『高士傳』에 나오는데 본래 또한 姓이 莊이었는데 뒤에 嚴으로 改氏했다. 『姓氏急就篇』에 보인다.”라고 하였다¹⁸⁾. 裝 또는 妝자를 嚴으로 대신한 경우도 있다. 『後漢書』 『吳漢傳』에 “매번 군사를 낼 때를 당해서 아침에 명령을 받으면 저녁에 출발하여 애초부터 行裝을 마련하는 때가 없었다(初無協嚴之日).”이라고 하였고 注에서 이르기를 “嚴은 곧 裝也니 명제의 휘를 피해서 고친 것이다.”라고 하였다. 『續漢書』 『祭祀志下』에서 “廟日上飯... 其親陵所宮人隨鼓漏理被枕 具盥水 陳嚴具”라고 했는데 嚴具는 곧 妝具이다. 이에 대해 王彥坤은 “陳垣 선생은 ‘裝과 妝은 옛날에 莊과 通用하였다. 어떤 사람이 이것으로 莊의 嫌名을 피한 것이라고 했는데 옳지 않다. 嫌名을 諱한 것은 사실상 한나라 이후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였지만 裝字가 이미 『國策』 『齊策四』, 『史記』 『酈生陸賈列傳』에 보이고 妝字가 이미 甲金文에 보이고 『說文』에도 두 글자가 함께 쓰인 사실을 고려해보면 嫌名을 피휘한 시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였다¹⁹⁾.

章帝(75~88)의 이름은 坦이고 著로 대신하였다. 『後漢書』 『章帝紀』의 注에서 伏侯의 『古今注』를 인용하여 이르기를 “坦字는 著라 이른다”고 하였다²⁰⁾.

和帝(88~105)의 이름은 肇이고 始로 대신하였다. 『吳地記』에 이르기를 “婁門... 동남쪽 3리되는 곳에 한나라 吳郡太守 朱梁의 무덤이 있다. 본명은 肇인데 후한 和帝의 휘를 피하여 梁으로 개칭한 것이다. 지금 吳郡의 朱氏는 모두 梁의 후손이다.”라고 하였다.

殤帝(105~106)의 이름은 隆이고 盛으로 대신하였다. 『後漢書』 『伏隆傳』의 隆字伯文을 당나라 때 李賢은 注에서 “『東觀記』에서는 隆을 盛으로 썼다.”고

하였다.

安帝(106~125)의 이름은 祐이고 福으로 대신하였다. 東漢의 兩侯 朱祐를 『東觀漢記』에서 朱福이라 했고 李賢은 “安帝의 諱를 피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安帝의 生父 清河王의 이름은 慶이다. 『三國志』 『吳書』 『賀齊傳』注에서 虞預의 『晉書』를 인용하여 이르기를 “賀氏는 本姓이 慶氏이다. 齊伯父 慶純이 儒學을 공부하여 유명하였는데 한나라 安帝 때에 侍中이 되고 江夏太守를 지냈다... 安帝의 아버지 孝德皇의 諱를 피하여 賀氏로 바꾸었다.”라고 하였다. 『宋史』 『文苑傳五』에서 이르기를 “賀鑄의 字는 方回니 衛州人이다. 일찍이 스스로 말하기를 당나라 諫議大夫 賀知章의 후손이라 하였다. 또 그의 시조를 미루어 올라가면 王子 慶恩에게서 나와 慶으로 姓을 삼았다. 越의 湖澤에 살았으니 이른바 鏡湖는 본래 慶湖이다. 한나라 安帝의 아버지 清河王의 휘를 피하여 賀氏로 바꾸었다. 慶湖가 또한 鏡湖로 변했는데 당시 사람들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몰랐다. 그래서 賀鑄가 慶湖遺老라고 自號했고 『慶湖遺老集』 20권이 있다”라고 하였다²¹⁾.

順帝(125~144)의 이름은 保이고 守로 대신하였다. 『通典』 『職官九』에서 후한의 國子博士는 “限年五十”이라 했고 注에서 “其督郵板狀曰, 生事愛敬, 喪沒如禮... 下言某官某甲保舉, 順帝諱保, 故稱守”라 하였다²²⁾.

冲帝(144~145)의 이름은 炳이고 明으로 대신하였다.

質帝(145~146)의 이름은 續이고 繼로 대신하였다.

桓帝(146~167)의 이름은 志이고 意로 대신하였다. 『後漢書』 『蔡邕傳』에 이르기를 “邕이 이전에 東觀에 있을 때 盧植, 韓說 등과 『後漢記』를 짓고 보충했는데 마침 사변을 만나 流離되어 완성을 보지 못하였다. 인하여 글을 올려 스스로 진술하여 그가 지은 十意를 아뢰었고 머리 제목을 분별하여 연속하여 상주

18) 王彥坤, 歷代避諱字匯典,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7. pp.680-681.

19) 王彥坤, 歷代避諱字匯典,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7. p.683.

20) 范曄, 後漢書(1), 北京, 中華書局, 1991. p.898.

21) 王彥坤, 歷代避諱字匯典,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7. p.349.

22) 杜佑, 通典(1), 北京, 中華書局, 1992. p.766.

문의 왼쪽에 두었다.”라고 하였고 注에서 “전한서의 10의와 같다. 채옹별전에서 이르기를 ‘邕이 이전에 지은 『漢記』10意, ... 『律曆意』第一, 『禮意』第二, 『樂意』第三, 『郊祀意』第四, 『天文意』第五, 『車服意』第六...’이라 하였다²³⁾. 여기서 蔡邕이 志라 하지 않고 意라고 한 것은 桓帝의 諱를 피한 것이다. 또 趙戒의 字는 志伯인데 『孔廟置守廟卒史碑』에서는 意伯이라고 하였다.

靈帝(167~189)의 名은 宏이고 大로 대신하였다.

獻帝(189~220)의 名은 協이고 肅으로 대신하였다.

2) 삼국시대

(1) 概說

삼국 시대는 시대도 짧았고 각처에 치우쳐 있었지만 그 諱法은 또한 극히 고증할 만한 것이 있다. 魏의 학자 王肅은 『已遷主諱議』를 지었는데 『通典』104에 실려 있다. 그의 주장은 詩書臨文, 廟中 및 言事 등은 모두 諱가 필요치 않고 오직 신하와 백성들이 名을 써서는 안되는 것일 뿐이었다. 魏나라 신하 張昭가 『駁應劭爲舊君諱議』를 지었는데 本傳의 注에 실려 있다. 응소는 “建武(후한 광무제 때 연호) 이래로 옛 임금의 이름을 회해야 할 것이 오륙십 명에 이르니 後生들은 그 이름을 갈게 해서 안 된다.”라고 하였으나 張昭는 “친한 친척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멀어지고 존귀한 사람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멀어지니 가까운 것이 멀어졌다면 회하여 구애 받을 필요 없다”라고 하였다. 두 나라 신하의 言論이 이와 같은데 실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魏紀』를 보면 “甘露 5년에 조칙을 내리기를 옛날에 임금의 이름은 잘 알지를 못해 犯하기 어려웠고 諱하기는 쉬웠다. 지금 常道鄉公의 諱는 아주 피하기가 어려우니 널리 의논해서 바꾸어서 列舉하여서 올려라”라고 하였다. 常道鄉公은 陳留王이다. 初名은 璜이고 즉위 후에 奐으로 개명했다. 奐은 燕王宇의 아들이다. 景元 元年에 有司가 사안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아뢴 때와 上書, 文書 작성 그리고 관리와 백성들이 모두 王諱를 犯觸하지 못했다. 이것이 魏나라

의 故事이다.

『吳志』를 보면 “赤烏 5년(242년)에 아들 和를 세워 太子로 삼고 禾興을 改名하여 嘉興이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역대로 嫌名을 피한 시초이다. 『孫休傳』永安5年 注에서 『吳錄』을 인용하여 孫休의 詔書를 실었다. “禮에 이름을 범하기는 어렵고 피하기는 쉽도록 해야 한다. 짐이 이제 四男을 위해 이름을 짓는데 太子의 이름은 覓, 발음은 灣, 字는 蒯, 발음은 迄이고, 次子의 이름은 眞, 발음은 觥, 字는 羿, 발음은 磻, 次子의 이름은 眞, 발음은 莽, 字는 昱, 발음은 舉, 次子의 이름은 慈, 발음은 褒, 字는 獲, 발음은 擁이니 이는 모두 세상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지 않아 아마 버리고 피하기가 쉬울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魏나라의 故事이다.

孫皓 때 后父 滕牧, 司空 丁固는 모두 이름이 密이었다. 滕은 丁을 피해 牧이라 改名했고 丁은 滕을 피해 固로 개명했다.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서로를 회피한 것으로 삼국시대의 특별한 풍속이었다.

孫皓의 字는 元宗이었는데 吳令 孟宗은 仁으로 개명했다. 劉備의 叔父의 字는 子敬이었고 孟達도 字가 子敬이었다. 유비가 유봉에게 죽음을 내리자 유봉이 탄식하여 이르기를 “孟子度의 말을 쓰지 않은 것이 한스럽구나”라고 하였다. 子度는 孟達로 先主의 叔父 敬을 피하여 고친 것이다. 이름을 피하는 것이 字에까지 미쳤는데 이것이 또 삼국시대의 특별한 풍속이다.

『韋曜傳』에 “잘못 皓의 諱를 범하여 즉시 잡혀서 묶여졌고 죽임을 당함에 이르렀다”는 말이 있다. 혹자는 이것이 오나라 때 諱禁이 아주 엄격하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여기서 皓의 諱라는 것이 忌諱였지 名諱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다. 『孫皓傳』에서 이르기를 “孫皓는 거칠고 포악스러웠고 忌諱하는 것이 많았고 酒色을 좋아했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孫皓가 포악하고 사나운 것이 이와 같았는데 어느 누가 그의 이름을 범할 수 있었겠는가²⁴⁾.

(2) 事例

魏나라 武帝의 성명은 曹操이다. 曹丕가 임금

23) 范曄. 後漢書(7). 北京. 中華書局. 1991. pp.2003-2204.

24) 陳垣. 史諱舉例. 北京. 中華書局. 2006. pp.110-111.

된 뒤에 太祖武帝라고 追尊했다. 『資暇集』卷上에서 이르기를 “『篤論』에서 이르기를 杜伯度の 이름은 操이고 字는 白度인데 草書에 능했다. 曹魏時에 그의 이름이 武帝와 같았기 때문에 숨기고 字를 사용했다. 後人들이 그의 姓이 杜요 字가 伯度인 것을 보고 또 伯字를 생략하고 杜度라고 불렀다.”라고 하였다. 『經史避名彙考』卷9에서 이르기를 “거문고 곡조를 暢이라 하고 操라고 한다. 操라는 것은 災害를 만나도 그 操를 잃지 않음을 말한다. 虞 및 周, 漢으로부터 모두 있었다. 魏의 武帝를 휘하였기 때문에 피하여 짓지 않았다. 그래서 蔡中郎의 『十操』 이후로 부터는 당나라 한유에 이르러 비로소 계승되었다... 당시의 作者들은 歌로 명명하였으니 院瑀의 『琴歌』, 曹植의 『琴瑟調歌』, 嵇康의 『風入松歌』 및 『中散四弄』의 종류이다. 愷는 『廣陵散』을 잘 연주했는데 散은 또한 操의 別名이다... 劉潛의 『琴議』에서 이르기를 ‘杜夔가 『廣陵散』에 대해 오묘한 경지에 이르렀는데 愷는 그의 아들 杜猛에게서 이 소리를 구해 터득한 것이다’ 廣陵은 본래 옛날의 琴操의 이름으로 愷가 스스로 지은 것이 아니다. 散이라고 한 것은 武帝의 諱를 피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捉으로 操를 대신한 경우도 있다. 『經史避名彙考』卷9에 이르기를 “儀衛有捉刀라는 내용이 『世說』에 보인다. ‘魏武帝가 匈奴의 사자를 보려고 하다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모습에 못생겼으니 遠國을 도모하지 못하리라고 여겨 崔季珪로 대신하게 하고 武帝는 스스로 捉刀하고 床頭에서 있었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捉은 곧 操이다. 『吳志』「孫權傳」의 操刀上岸, 『魯肅傳』의 羽操刀起를 모두 操라고 하였는데 魏나라에서는 휘하여 捉으로 바꾸었고 六朝에서 답습하였다”고 하였다²⁵⁾.

文帝(220~226)의 이름을 丕였는데 史書에 특별하게 휘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明帝(226~239)의 이름은 睿였는데 史書에 특별하게 휘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齊王(239~254)의 이름은 芳이다. 『三國志』「魏書」「文帝紀」의 裴松之注에서 이르기를 “『魏書』에 이르기를 ‘...이 해 겨울에 甘露가 芳林園에 내렸다’ 臣 松

之가 살펴보건대 芳林園은 지금의 華林園인데 齊王 芳이 즉위하고 나서 華林으로 개칭하였다”고 하였다²⁶⁾.

元帝(260~265)의 初名은 璜이었다. 甘露 5년에 高貴鄉公가 曹髦(254~260)가 죽고 璜이 즉위할 때 太后가 조서를 내려 휘하기 쉬운 글자로 朝臣들이 논의하여 바꾸게 하였는데 즉위한 뒤에는 兪으로 바꾸었다.

吳나라 大帝(222~252)의 성은 孫이고 이름은 權이다. 權을 대신하여 柄 또는 勢자를 썼다. 『三國志』「吳書」「孫休傳」에 張布가 專擅國勢한다고 했고 『諸葛瑾傳』에서는 손권이 제갈근에게 물기를 “대저 위엄과 권력이 전일하지 않으면 일이 어그러지니 옛날 張耳와 陳餘는 敦睦하지 아니함이 없었는데 권력을 잡음(秉勢)에 이르러서는 스스로 또한 상대방을 해쳤다.”고 했다²⁷⁾. 「賀邵傳」에는 賀邵가 상소하여 孫皓에게 諫하기를 “何定은 본래 흐름을 따라 달리는 소인이며... 그런데도 폐하께서 그의 아첨함을 좋아하여 그에게 威柄을 빌려주었습니다.”하였고 또 “이 모두는 陰氣가 陽氣를 업신여기고 小人이 弄勢해서 생긴 일입니다.”라고 하였다²⁸⁾. 여기에서 權字를 모두 柄 또는 勢로 바꾼 것을 살펴볼 수 있다. 樞로 權을 대신한 경우도 있다. 『三國志』「蜀先主傳」의 裴注에서 『獻帝春秋』를 인용하여 유비가 손권에게 답하는 글에서 이르기를 “지금 동맹을 맺은 상태에서 까닭 없이 서로 攻伐하여 借樞于操(권한을 조조에게 빌려주다)하여 적으로 하여금 그 틈을 타게 하는 것은 장구한 계책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는데 權을 피해서 樞로 대신한 것이다²⁹⁾.

손권의 太子의 이름은 和였는데 嫌名을 피하여 禾로 하였다. 赤烏 5년(242년)에 아들 和를 太子로 세우고 크게 사면을 내렸으며 禾興을 嘉興으로 고쳤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陳垣은 이것이 嫌名을 휘한 시초라고 하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景帝(258~264)의 이름은 休이다. 『寰宇記』卷104

26) 陳壽. 三國志(1). 北京. 中華書局. 1982. p.84.

27) 陳壽. 三國志(5). 北京. 中華書局. 1982. p.1234.

28) 陳壽. 三國志(5). 北京. 中華書局. 1982. p.1457.

29) 陳壽. 三國志(5). 北京. 中華書局. 1982. p.880.

25) 王彥坤. 歷代避諱字彙典.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7. pp.37-38.

에서 『邑圖』를 인용하여 이르기를 “오나라가 歙縣의 서북쪽을 나누어 休陽縣이라 고쳤다.”고 하였다. 이 뒤에 晉나라는 吳나라를 병합한 후에 다시 海寧縣으로 개칭하였다. 오나라 末帝 天璽 元年(276년) 吳興 陽羨山의 封禪碑에 “對揚乾命”이라는 말이 있다. 이에 대해 王彥坤은 『尚書』「說命下」에는 “敢對揚天子之休命”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서 休命이라 하지 않고 乾命이라 쓴 것은 景帝의 諱를 피한 것이라고 하였다³⁰.

歸命侯(264~280) 孫皓의 字는 元宗 또는 皓宗이라고 했는데 號를 휘하여 孟宗이 孟仁이라고 개명하였다.

3) 晉時代

(1) 概說

회화는 진나라 때에 이르러 점점 嚴密해졌다. 『通典』¹⁰⁴「禮篇」에 실린 諱議는 대부분이 진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거기에서 의론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七廟의 諱字에 대한 의론(七廟諱字議), 둘째, 上書에서 帝諱를 범하는 것과 帝가 낳은 자식을 諱하는 것에 대한 의론(上書犯帝諱 及帝所生諱議), 셋째, 山川과 廟諱는 같으니 응당 개변해야 한다는 의론(山川與廟諱同 應改變議), 넷째, 表를 올릴 때 太子의 이름을 稱하는 의론(上表稱太子名議), 다섯째, 父諱와 소속된 부서의 책임자의 이름이 같은 경우 에 대한 의론(父諱與府主名同議), 여섯째, 부여 받은 관직과 본명이 같을 때는 마땅히 바꾸어야 함과 官位가 조상의 諱를 범하는 것에 대한 의론(授官與本名同宜改 及官位犯祖諱議) 등인데 진실로 이미 토론한 것이 지극히 상세하다. 그러나 진나라 때의 諱制는 결코 당나라, 송나라 때처럼 번거롭지가 않았다. 그 특이한 것은 동진 때 皇后의 휘가 역대에 비해 특별히 많다는 것이다. 『通典』에 있는 帝所生諱議는 당시 吳興郡의 上書에 鄭太妃 諱를 犯한 春字가 있어 조서를 내려 추국하게 한데 여러 관리들이 대부분 小君之諱는 諱榜에 배열되므로 天下가 同諱하고 所生之諱는 諱榜(諱해야 할 글자를 公表하여 써서 붙인

것)에 배열되지 않으므로 天下가 諱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였으니 진나라 때의 皇后의 諱는 사실상 諱榜에 배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晉書』「后妃傳」에 “成恭杜皇后의 陵陽(陽字는 연문이다)을 諱하여 陵陽縣을 廣陽으로 개칭하였다.”고 하였고 『毛穆之傳』에 “字는 憲祖요 小字는 武生이니 이름이 哀靖 王后諱를 범했기 때문에 字를 쓴 것이다. 뒤에 또 桓溫의 어머니의 이름이 憲이었기 때문에 다시 小字로 불렀다.”고 하였다. 鄭太妃의 諱는 비록 조정의 의론을 거쳤지만 대다수가 응당 회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다. 그러나 임금이 諱하는 바는 신하들이 회하지 않을 수 없다는 說이 또한 지극히 힘을 얻어 모든 春字 지명은 모두 陽자로 바꾸었으니 富春을 富陽이라 하고 宜春을 宜陽이라 한 것과 같은 종류가 이것이다. 또 당시에 禮를 담당하는 신하가 『春秋』는 반드시 『陽秋』로 불러야 한다는 것을 인용하였으니 『鄭太后傳』에서 이르기를 “陽秋의 뜻은 어머니로써 자식이 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과 같다. 또 이르기를 “陽秋는 二漢의 故事에 의한 것이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孫盛, 檀道鸞 등은 책을 지어서 또한 陽秋라고 하였는데 『晉陽秋』, 『續晉陽秋』가 이것이다. 『褚裒傳』에서는 “季野有皮里陽秋”라 하였고 후세에 美談이 되어 전해졌다. 趙宋 때에 葛立方이 詩話를 지으면서 『韻語陽秋』라고 한 것은 이미 避諱했다는 것을 잊었기 때문이다³¹.

(2) 事例

晉나라 宣帝의 姓은 司馬이고 이름은 懿이다. 司馬炎의 할아버지로 晉을 건국한 후 高祖 宣皇帝로 추존했다. 懿는 益으로 대신하였다. 『蜀志』에서 張懿를 張益이라 했고 『宋書』에서 王懿를 字인 仲德으로 칭하였다.

景帝의 이름은 師이고 司馬炎이 伯父인 司馬師를 世宗景皇帝로 추존했다. 太師의 벼슬을 太宰로 개칭했다. 『晉書』「職官制」에 이르기를 “太宰, 太傅, 太保는 周나라의 三公官이다. 진나라 초기에 景帝의 諱였기 때문에 또 『周官』의 官名을 따서 太宰를 두어 太師의 일을 대신하게 했다”고 하였다³². 師保를 保傅

30) 王彥坤. 歷代避諱字匯典.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7. p.495.

31) 陳垣. 史諱舉例. 北京. 中華書局. 2006. pp.112-113.

32) 房玄齡 등찬. 晉書(3). 北京. 中華書局. 1991.

로 개칭했고 軍師를 軍司로 개칭했다. 『通典』「職官十一」에서 이르기를 “이전에 隗囂의 軍中에 일찍이 軍師를 두었고 魏武帝에 이르러 또 師官 4人을 두었다. 진나라 때 景帝의 諱를 피하여 軍司로 개칭했다.”고 하였다³³⁾. 京師를 京都 혹은 京邑이라고 개칭하였다. 『野客叢書』卷9에 이르기를 “晉景帝의 諱가 師이다... 京師를 京都라 하였다. 『吳志』「孫皓傳」에 이르기를 “集于京邑은 此洛陽也요 渡江而後엔 建康을 京邑이라고 稱하였다”고 하였다. 師에서 帥로 姓을 바꾸었다. 『通志』「民族略四」에 이르기를 “帥씨의 音은 술인데... 본래성은 師氏이다. 진경제의 諱를 피하여 帥씨로 고쳤다”고 하였다. 『廣韻』「東韻」「公」에서 이르기를 “晉書에... 成都王 帳下督에 公帥蕃이 있었는데 본성은 公帥로 경제의 諱를 피하여 公帥氏로 바꾼 것이다”라고 하였다³⁴⁾.

文帝의 이름은 昭이고 司馬炎이 父인 司馬昭를 太祖文皇帝로 추존했다. 『晉書』「陸機傳」에 육기의 『辯亡論』을 신고 이르기를 “이에 張公이 師傅가 되고 周瑜, 陸公, 魯肅, 呂蒙의 무리가 들어가 腹心이 되고 나와서는 股肱이 되었다”고 하였다. 『經史避名彙考』卷10에서 이르기를 “아래의 公字는 家諱이고 위의 公字는 文帝의 諱를 피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晉書』「陸機傳」, 『辯亡論』에서 세 번 張昭를 칭하면서 모두 張公이라고 한 것은 陸機가 晉의 諱를 피한 것이다. 지금 『文選』에서 두 번은 張昭라고 바꾸었는데 한번은 여전히 張公이라고 한 것은 또한 後人이 바꾸기를 다하지 아니 한 것이다.

『晉書』「地理志上」의 涼州 張掖郡에서 이르기를 “臨澤은 한나라의 昭武縣인데 文帝의 諱를 피해 고친 것이다.”라고 하였다. 『諱名考』에서 이르기를 “昭亭山을 敬亭山으로 개칭했다.”고 하였다. 『晉書』「樂志上」에서 이르기를 한나라 高祖 때 樂人으로 하여금 闔中民間舞蹈를 익히게 하고 『巴渝舞』라고 이름하였다. “(魏文帝) 黃初三年에 또 『巴渝舞』를 『昭武舞』로 바꾸었다... 晉나라 때 이르러 또 『昭武舞』를 『

宣武舞』로 바꾸었다.”고 했는데 이는 昭字가 廟諱를 범했기 때문이다. 昭字는 明字 로 대신하는 경우가 있고 韶, 邵, 顯 또는 다른 글자로 대신한 경우도 많았는데 明字로 대신하는 경우는 王昭君을 王明君, 明君으로 칭하다가 뒤에는 明妃라고 하였고 『丹陽記』에서는 魏皇后의 正殿인 昭陽을 明陽으로 불렀다. 또 『晉書』「武帝紀」에는 武帝가 魏나라의 선양을 받고 上帝에게 類祭사를 지내면서 告하기를 “皇帝臣炎은 敢用玄牡하고 明告于皇皇后帝하노이다”라고 하여 昭告를 明告로 바꾸었다.

昭를 韶로 바꾼 경우는 다음과 같다. 『三國志』「吳書」「孫堅傳」에서 “會稽의 妖賊 許昌이 句章에서 일어나 자칭 陽明皇帝라 하고 그의 아들 許韶와 더불어 諸縣을 선동하여 무리가 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許韶의 본명은 許昭인데 韶라고 한 것은 陳壽가 晉의 廟諱를 피한 것이다. 『漢書』「韋賢傳」의 顏師古 注에서 “昭穆者는 父子易其號序也니 昭는 明也오 穆은 美也라. 後以晉室諱昭故로 學者改昭爲韶라”하였다. 昭를 邵로 바꾼 경우는 다음과 같다. 『宋書』「州郡志二」 江州 建安郡에서 이르기를 “昭武子 吳立曰昭武 晉武帝更名”이라 하였고 同書 『州郡志三』의 湘州 邵陵郡에서 “邵陽男 吳立曰昭陽 晉武改”라 하였으며 梁州 晉壽郡에서는 “邵歡令 『永初郡國』何徐并有나 설치하고 세운 것에 대해 注를 달아 놓지 않았으니 아마 蜀나라에서 세워 昭歡이라 한 것을 晉나라에서 改名한 듯하다”라고 하였다. 顯으로 昭를 대신한 경우는 昭明宮을 顯明宮으로 바꾼 경우이다. 『三國志』「吳書」「孫皓傳」에 寶鼎二年 여름 6일에 顯明宮을 기공하였다. 裴松之가 『太康三年地記』를 인용하여 이르기를 “昭明宮은 사방 오백장이니 손호가 지었다. 진나라의 諱를 피하여 顯明이라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昭를 다른 글자로 대신한 경우는 蔡邕의 딸 琰의 字가 昭姬였는데 文姬로 쓴 것과 같은 경우이다³⁵⁾. 또 『吳志』를 보면 韋昭를 韋曜라고 하였다.

武帝(265~290)의 이름은 炎이다. 『三國志』「魏書」「管輅傳」에 “平原太守 劉邠”이라 했고 裴松之注는 『

pp.724-725.

33) 杜佑, 通典(1). 北京, 中華書局, 1992, pp.804-805.

34) 王彥坤, 歷代避諱字匯典.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7, pp.383-384.

35) 王彥坤, 歷代避諱字匯典.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7, pp.614-615.

晉諸公贊을 인용하여 “那의 본명은 炎인데 晉太子의 諱를 犯하여 那으로 고쳤다”고 하였다³⁶⁾. 같은 책 『王肅傳』에서 “당시에 樂安 孫叔然은 鄭玄의 문하에서 受學하였는데 사람들이 東州大儒라고 불렀다”고 했다. 裴注에서 “臣 松之가 살펴보건대 叔然은 晉武帝와 同名이기 때문에 그의 字로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³⁷⁾.

惠帝(290~306)의 이름은 衷이고 懷帝(306~313)의 이름은 熾인데 특별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愍帝(313~316)의 이름은 暉이다. 『晉書』『孝愍帝紀』에 이르기를 建興元年8월에 “建業을 建康으로 고쳤고 鄴을 臨漳으로 고쳤다”고 하였다³⁸⁾.

東晉 元帝(317~322)의 이름은 睿이다. 『宋書』『王懿傳』에 이르기를 王懿의 字는 仲德이고 兄 睿의 字는 元德이다 “兄弟의 이름이 晉宣帝와 元帝 二帝의 諱를 犯하여 모두 字로 칭했다”고 하였다. 『經史避名彙考』卷10에서 이르기를 “살피건대 六朝人이 이름이 帝諱를 犯한 자가 字로서 行세하고 이름을 바꾸지 않은 것은 仲德兄弟로부터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銳 또는 明으로 睿를 대신하였다. 『晉書』『羅尚傳』에 “尚乃使兵曹從事任銳로 僞降이라”고 하였다. 『李特載記』에는 任明이라 했고 『華陽國志』卷8에는 任睿라고 했다. 『史諱學例』에서 “睿가 본명인데 진나라 사람이 元帝의 諱를 犯해서 바꾼 것이다. 銳는 同音を 取한 것이고 明은 同義를 取한 것이다”라고 하였다³⁹⁾.

明帝(322~325)의 이름은 紹인데 특별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成帝(325~342)의 이름은 衍이다. 『晉書』『成恭杜皇后傳』에 后母裴氏는 “太尉王夷甫外孫”이라고 했는데 成帝의 諱 衍을 犯하여 王衍을 字로 호칭한 것이다.

康帝(342~344)의 이름은 岳이다. 岳을 嶽, 岱, 崇으로 대신 한 경우가 있다. 먼저 嶽으로 岳을 대신한 경우이다. 『晉書』『鄧嶽傳』에 “鄧嶽의 字는 伯山이니 陳郡人이다. 本名은 岳인데 康帝의 諱를 犯했기 때문

에 嶽으로 고쳤고 뒤에 마침내 岱로 改名하였다”고 하였다. 岱로 岳을 대신한 경우는 『齊東野語』卷4에서 “康帝의 諱가 岳이어서 鄧岳이 鄧岱라 했고 山岳은 山岱라고 하였다”라고 한 내용이다. 崇으로 岳을 대신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晉書』『王孫傳』에 將軍 姚崇이 있는데 『明帝紀』, 『李雄載記』에 모두 姚岳이라 하였고 『通鑑』卷92에서는 姚嶽이라고 하였다. 『晉書』卷81 『校勘記』에서 이르기를 “이 사람의 本名은 岳인데 더러 嶽이라고 하였고 그 뒤에 진나라 史臣이 康帝의 諱를 犯하여 崇으로 그 이름을 바꾸었다”라고 하였다⁴⁰⁾.

簡文帝(371~372)의 이름은 昱이다. 嫌名인 涑을 避한 곳이 있다. 『水經』『涑水注』에 涑陽縣은 “진나라 간문제의 諱를 犯하여 雲陽으로 이름을 바꾸었다.”라고 하였다⁴¹⁾.

III. 結論

秦漢시대, 三國 시대, 晉王朝 시대의 왕명과 避諱의 사례를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秦나라는 生諱가 시작되었으나 그 법이 제도화 되지 않았고 간략하게 시행되었다.
2. 漢나라 때는 일정하게 대신하는 글자가 있었고 上書할 때 廟諱를 犯해서는 안되었지만 臨文不諱하고 詩書不諱 하였으며 비교적 자유로운 점이 있었다.
3. 魏나라 때는 有司가 事案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아릴 때, 上書, 文書 그리고 官리와 백성들은 모두 王諱를 犯해서는 안되었다.
4. 吳나라 때 赤烏 5년 孫和를 세위 태자로 삼고, 禾興을 嘉興이라고 改名했는데 이것은 嫌名을 避한 시초이다.
5. 삼국 시대에는 이름을 避諱하는 것이 字에까지 미쳤는데 이는 삼국 시대의 특별한 풍속이다.
6. 魏나라 때에 이르러 점점 엄밀해졌지만

36) 陳壽. 三國志(3). 北京. 中華書局. 1982. p.822, 824.

37) 陳壽. 三國志(2). 北京. 中華書局. 1982. pp.419-420.

38) 房玄齡 等撰. 晉書(1). 北京. 中華書局. p.127.

39) 陳垣. 史諱學例. 北京. 中華書局. 2006. p.52.

40) 王彥坤. 歷代避諱字彙典.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7. p.599.

41) 酈道元. 水經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0. p.600.

당나라, 송나라 때처럼 번거롭지는 않았고 특이한 점은 동진 때에 이르러서는 皇后의 諱가 역대에 비해 특별히 많았다는 것이다.

參考文獻

1. 蕭遙天. 中國人名研究. 北京. 新世界出版社. 2007. p.108.
2. 陳垣. 史諱學例. 北京. 中華書局. 2006. p.52, 132, pp.61-62, 110-111, 112-113.
3. 王守謙 등 譯注. 戰國策全譯. 貴陽. 貴州人民出版社. 1992. pp.70-71, 680-681.
4. 陳奇猷 校釋. 呂氏春秋校釋(1). 上海學林出版社. 1984. p.335, 340.
5. 王彥坤. 歷代避諱字匯典.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7. p.349, 495, 599, 646, 683. pp.37-38, 339-340, 383-384, 491-492, 614-615.
6. 司馬遷. 史記. 北京. 中華書局. 1982. p.1359, 1740, 1944, 2225, pp.273-274.
7. 酈道元. 水經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0. p.456, 600.
8. 班固. 漢書. 北京. 中華書局. 1992. p.301, 347.
9. 沈約. 宋書. 北京. 中華書局. 1983. p.1257.
10. 范曄. 後漢書. 北京. 中華書局. 1991. p.898, pp.2003-2204.
11. 杜佑. 通典. 北京. 中華書局. 1992. p.766, pp.804-805.
12. 陳壽. 三國志. 北京. 中華書局. 1982. p.84, 822, 824, 880, 1234, 1457, pp.419-420.
13. 房玄齡 등찬. 晉書. 北京. 中華書局. 1991. p.127, pp.724-725.

